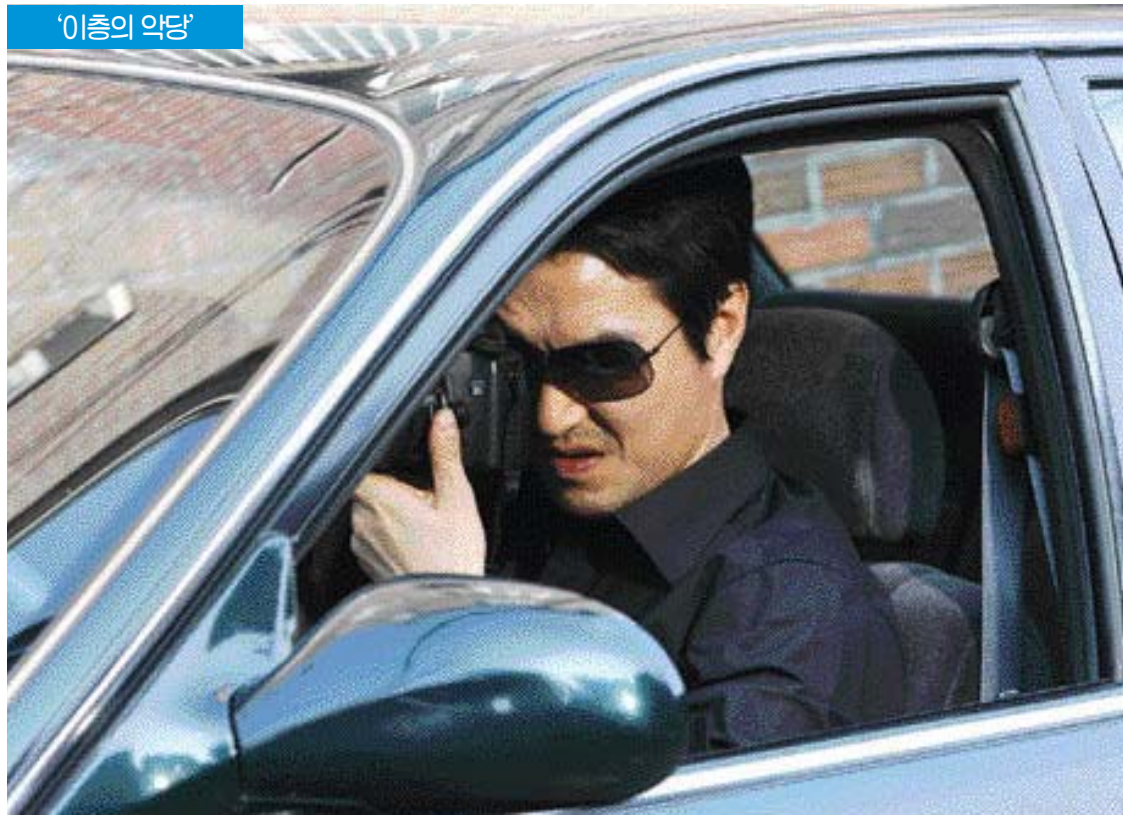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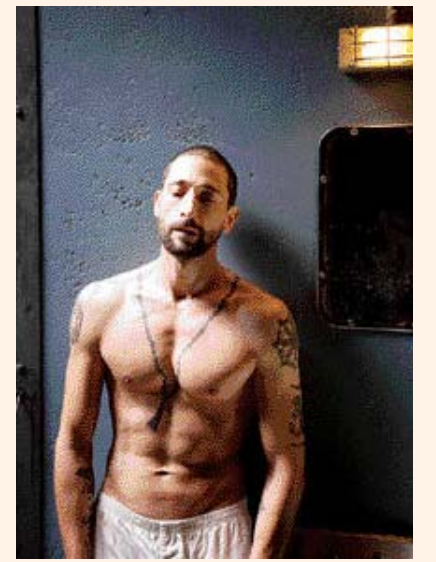
'사랑은 빛을 타고'



'이층의 악당'

새 영화

엑스 페리먼트



197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벌여졌던 '감옥실험'을 모티브로 한 스릴러 영화다.
 '감옥실험'은 일반 사람들을 죄수와 간수로 구분한 뒤 인간의 본성을 관찰한 실험으로 독일의 올리버 히르쉬비겔 감독이 지난 2001년 영화화 하기도 했다.
 트래비스는 사랑하는 연인 베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무작정 한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그 실험은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 남자들을 간수와 죄수 그룹으로 나눈 다음 2주간 가상

폭염에 지친 당신, 코미디 영화 기대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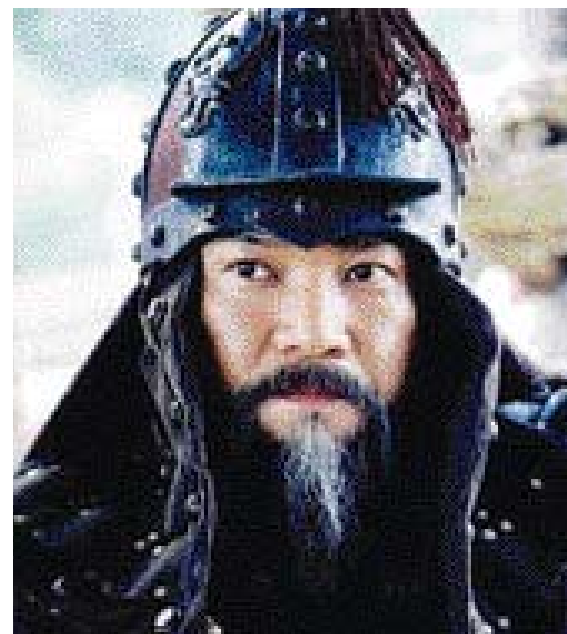
'다양한 코미디'가 물러온다. 최근 들어 한국영화계의 큰 흐름은 스틸러다. '이끼'에 이어 '아저씨'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으며 12일 개봉한 '악마를 보았다' 역시 관객들의 기대치가 높다.
 이처럼 강한 영화들이 주로 제작되면서 아기자기한 재미를 주는 코미디 영화를 만나기 어려웠던 게 사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스타일의 코미디 영화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평양성, 이준익 감독 코믹 퓨전 황산벌 2탄
- 페스티벌, 소시민 성적 취향 재미있게 그려
- 시라노 연애..., 연애조작 소재 로맨틱 코미디
- 이층의 악당, 한석규·김혜수의 앙상블 연기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평양성'은 개봉 당시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이감독의 흥행작 '황산벌'의 뒤를 잇는 코믹 퓨전 사극이다.
 '평양성'은 백제를 멸망시켰던 황산벌 전투 8년 후,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 계기로 기록된 '평양성 전투'를 한반도를 집어 삼키려는 당나라에 맞서기 위한 신라와 고구려의 연합 작전이었다는 신선한 발상으로 재구성한다.

또 '황산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시기'가 전면에 등장. 전쟁터에서 다시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그려질 예정이다.
 전편에 이어 김유신 장군에 정진영, 거시기 역에 이문석이 그대로 등장하며 고구려 장군 남건 역에 류승룡, 연계소문의 첫째 아들 남생 역에 윤재문 호전적인 고구려 여인 갑순 역에 선우선 등 연기와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됐다.
 촬영을 모두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인 '페스티벌'은 섹스 코미디를 표방한 작품이다.
 '천하장사 마돈나'로 인상적인 데뷔를 했던 이해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페스티벌'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억누르고 감춰왔지만 했던 각각의 성적 취향을 따듯하고 코믹하게 풀어낸 섹스 코미디물이다.
 가학적 섹스의 욕망에 들끓는 순심, 앙금한 여고생 자혜, 속웃 페티시즘이 있는 상두, 섹스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인 장배와 지수 커플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장배 역의 신하균, 지수 역의 엄지원, 순심 역의 심해진, 상두 역의 류승범 등 배우들의 캐스팅도 흥미롭다.
 '시라노 연애 조작단'과 '사랑은 빛을 타고'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다.
 '사랑은 빛을 타고'는 신용불량자인 강력계 형사와 카드사 채권팀의 여사원이 티격태격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야기를 그린 작품.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임창정과 드라마·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엄지원이 주연을 맡았다.
 '광석이 동생 광태' 등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에 장기를 발휘해온 김현식 감독의 '시라노 연애 조작단'은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을 대신해 연애를 이루어주는 연애조작단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을 의뢰하고 의뢰받는 이들이 얽히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물로,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엄태웅과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킴'의 최다니엘이 주연을 맡았다.
 드라마를 통해 사랑스런 이미지를 보여줬던 김민정과 박신혜가 여주인공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현재 한창 촬영 중인 '이층의 악당'은 스릴러가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범죄 스릴러라는 독특한 장르로 흥행에 성공했던 '달콤, 살벌한 연인'의 손재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우물쭈물 30대 여자와 20억 원 가치의 '청화용문다기'를 찾기 위해 여자 집에 세든 남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이 작품이 기대를 모으는 건 캐스팅이다.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닥터봉' 이후 오랜만에 다시 만난 한석규와 김혜수가 다시 한 번 앙상블 연기를 선보인다. 11월 개봉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평양성'의 정진영



'시라노 연애 조작단'

- 죄수그룹 대 간수그룹
- 2주간 가상 감옥 체험
- 결국 살인으로 치닫고...

의 감옥 체험을 하는 것. 벤지, 니스 등과 함께 죄수 그룹에 들어간 트래비스는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며 실험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험 2일째, 사소한 다름이 간수 그룹에 속해 있던 배리스와 체이스를 자극하며 실험 참가자들은 점차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하면서 가상의 실험은 점차 파국의 현실로 치닫게 된다.
 우간다의 히틀러로 불리는 이디아민 역으로 출연한 '라스트 킹'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연기와 배우 포레스트 휘테커와 역시 '피어리스트'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에이드리언 브로디 등이 출연한다.
 미드 '프린스 브레이크리' 시리즈의 총제작자 겸 총책임자로 활약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각본가로 인정받고 있는 폴 셰어링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